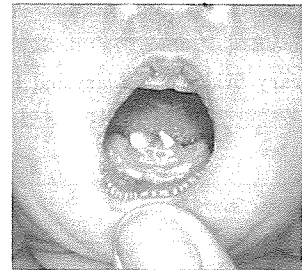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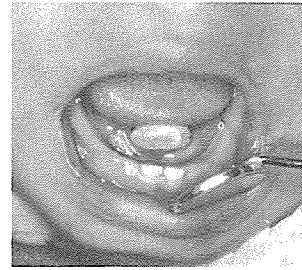


兒童의 外科的 處置

소아치과 영역에서 특히 외과적 처치를 할 때에는 아동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그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술자도 인내와 포용성으로 환자를 대해야 할뿐 아니라 치료도 가장 간단하게 단시간내에 끝낼 수 있어야 한다.

외과적 처치에는 간단한 발치에서부터 사고로 인한 악안면 영역의 복합적인 손상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1. Natal and Neonatal teeth의 처치

natal tooth는 태어날때 이미 구강내에 출현되어 있는 치아를 말하고 neonatal tooth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맹출되는 치아를 지칭한다(사진 1).

이들의 출현빈도는 신생아 2,000~3,000명중 1명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치아별로는 약 85% 이상이 하악 유중절치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상하악 유구치, 하악 유절치에서도 출현된 경우도 있다.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고 유전성이나, 만성 hypovitaminosis, 열성질환, 감염, trauma등에 의하여, 또는 치아 발육시 치배가 악골의 표피에 너무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이라는등의 여러가지 설이 있다.

과잉치인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부분은 유치이고 맹출직후에는 치근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동요도가 있으나 몇일후에는 골 bone내에 stabilization 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그대로 구강내에 유지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 동요도가 너무 심하여 우유병을 빨때 치아가 발치되어 기도로 넘어갈 우려가 있거나, 수유시 모체의 nipple에 상처를 주어 수유가 불가할때 또는 날카로운 치아의 incial edge에 의하여 혀의 하부에 계속적인 자극을 줄때(사진 2),대합축의 치조돌기,와 입술 및 손가락등에 상처를 줄 경우에는 발치를 해주어야 한다.

발치를 할 때에는 hemorrhage를 피하기 위하여 보통 생후 8~10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 이전에는 아직 prothrombin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vit. K.를 합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발치 약 24시간전에 미리 Vit. K 약 1mg정도를 prophylactic injection하는 방법이 추천되고 있다.

발치 술식은 매우 간단하여 hemostat나 curette, 소아용 narrow beaked extraction forep이 이용되기도 하고 동요도가 심한 경우에는 finger pressure만으로도 간단히 발치 되기도 한다.

마취는 필요치 않지만 간혹 도포마취를 하기도 하며, suture역시 필요치 않고 1~2분 정도만 gauze로 pressure를 가하면 쉽게 지혈이 된다.

간혹 midpalatine raphe를 따라 생기는 Epstein's pearls나 치조돌기 협축이나 설축에 나타나는 Bohm's nodules, 또는 dental ridge상에 생기는 dental lamina cyst 등과 감별되어야 한다.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 · 종로구 송인동 1081

전 화 : 93 - 6671 . 93 - 2998